

# 도시 공간의 실천으로서 성찰적 걷기에 관한 연구

-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와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를 중심으로

김승환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미셸 드 세르토의 전술적 걷기
  - 1. 도시의 산책자
  - 2. 텍스트화된 도시 읽기/쓰기
  - 3. 창조적 실천으로서 전술적 걷기
- III. 전술적 걷기로서 순례적 걷기
  - 1. 순례자의 성찰적 걷기
  - 2. 정치/신앙적 행위로서 순례
  - 3. 순례적 걷기에 대한 비판적 적용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07>

---

• ABSTRACT •

---

## A Study on Reflective Walking as Urban Spatial Practice: Focusing on Michel de Certeau and Stanley Hauerwas

Lecturer, Kim, Seung Hwa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offers reflective walking as a practice that restores spirituality and transcendence of cities secularized in contemporary contexts. I will explore the meaning of Michel de Certeau's 'tactical walking' and investigate reflective walking as a transformational practice of space in connection with Christian pilgrimage. Certeau understands walking as a self-reflective act that can overcome the city's oppressive system and social order. Pedestrians can be creative interpreters and practitioners of urban space. Their reflective walking aims for a life separate from secular values and leads to a 'pilgrimage walking' toward transcendence and relationship.

Stanley Hauerwas extends Certeau's concept of tactical walking to Christian discipleship. For Hauerwas, 'Pilgrimage' is a religious practice of disciples following Christ and a political act that resists secular culture and order. Through this, they try to change spatial meanings and urban community and clarify their identity. Based on the transcendence and relationship of walking behavior, I will suggest urban theological implications of resisting the ruling order of secular cities and living a transformative life of God's kingdom.

**Key words:** Spatial Practice, Michel de Certeau, Stanley Hauerwas, Pilgrimage, Tactical Walking

---

## I. 들어가는 말

근현대 도시는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발전해왔다. 높이 솟은 빌딩과 직선 도로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고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 장소들은 대중 교통망과 자동차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계획된 공간에서는 인격적 관계 형성이 쉽지 않고 계획된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반복된 행위들은 인간을 수동적 행위자로 위치시켰다. 근현대 도시는 공간의 인간(인격)적 차원을 제거하면서 도시 공간의 파토스와 인간의 삶이 부딪치는 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sup>1)</sup> 데이비드 하비가 ‘시·공간의 압축’이라 표현했듯이 도시 공간의 급격한 변화로 전통적인 정주의 삶을 벗어나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뉴노마드적 삶을 살아간다.<sup>2)</sup> 이런 공간에서는 마주치는 낯선 타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하여, 익명의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경쟁과 배타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도시 공간의 새로운 상상과 성찰을 위해서 공간과 공간, 공간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길(도보)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길은 도시 공간에서 가장 주목도가 떨어진다. 길은 사이의 공간, 또는 도시의 각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보조적 장소이자, 부차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길은 마치 몸의 핏줄처럼 도시민이 삶을 흐르게 하고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도시공간이다. 걷기의 주 무대인 길(보도)의 성찰적 인식은 도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장이 된다. 어떤 도시라도 길의 구조를 파악하면 그 도시의 성격과 이념을 알 수 있다.

1) 김성도, 『도시 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서울: 안그래픽스, 2014), 761.

2) 이상봉, “모빌리티 패러다임: 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지』 25(2017), 187-191.

봉건 영주의 성채를 중심으로 중앙과 대각선의 길이 뺀어 있는 중세 도시, 교회나 기념비를 중심에 놓고 도로를 겹겹이 둘러싼 종교 혹은 이념의 도시, 효율성을 기초로 길의 크기와 속도까지 제한하는 근대 도시처럼 길은 도시의 이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드러낸다.<sup>3)</sup> 도시 공간으로서 길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도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도시의 가치와 문화,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디자인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반복되는 일상적 행위로서 걷기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상 변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최근에 부상하는 ‘걷기 좋은 도시’는 안전한 길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서 타자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도시 전체를 관계적 공간, 신뢰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걷기 좋은 도시’는 인간적인 친밀함을 높이며 그러한 접촉들이 증가할 때마다 도시는 인격적인 공동체 공간으로 변화된다.<sup>4)</sup> 아무리 길게 뺀은 멋진 대로를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낯선 공간과 두려움의 장소가 될 뿐이다. 오래된 공공 보도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리를 오가며 걷는 속도로 천천히 도시를 경험하게 된다면 도시 공간은 분명 생명력을 더해 갈 것이다.<sup>5)</sup> 더 나아가 ‘걷기가 가져오는 성찰 지향적 삶’으로 도시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도시 공간의 변혁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걷기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참여 행위이며, 사색과 성찰의 자연적 사고의 흐름으로 공간의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행위이다.

본 연구는 미셸 드 세르토가 제시하는 도시 공간의 ‘전술적 걷기’가 지

3) 승효상,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서울: 돌베개, 2016), 53.

4) Jacobs, Jane, *City planning*,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서울: 그린비, 2010), 89-90.

5) 정석, 『도시의 발견』 (서울: 메디치, 2016), 47-48.

니는 발화적 의미를 살펴보고 기독교 전통의 순례 행위와 연결하여 도시 공간의 변혁적 실천으로 걷기를 제안할 것이다. 도시의 계획된 공간에 순응하여 걷는 대중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걸음걸이를 시도하는 ‘산책자’(만보객)는 도시 공간의 창조적 해석자이면서 실천가이다. 근대의 계획된 각본에 따르는 동선이 아닌 자신만의 의미를 발화하면서 도시 공간을 가로지르며 창조적 걷기를 성찰한다. 이러한 산책자들의 걷기는 마을과 도시를 걸으며 세속적 가치와 다른 삶을 지향하고 초월성과 관계성을 향한 ‘순례적 걷기’가 된다. 특히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언급한 ‘순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적 뒤편이요, 세속문화와 질서를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간의 변혁적 실천으로서 ‘성찰적 걷기’가 지니는 도신 신학적 함의를 살펴보겠다.

## II. 미셸 드 세르도의 전술적 걷기

### 1. 도시의 산책자

20세기 초, 보를레르는 「현대 생활의 화가」에서 콘스탄틴 기(Constantine Guys)를 ‘산책자’로 지목했다. 그는 근대 도시 파리를 한가하게 산책하듯 걸어 다니며 도시를 관찰했고 대도시의 비참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환상을 추구하면서 냉담한 도시 현실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sup>6)</sup> 20세기를 전후로, 파리의 한복판에 한가한 산책자들의 등장은 귀족과 같은 상류층들에게 국한 것이 아니며 근대 도시의 발전과 아카이드 공간의 등장에 따라 성장한 중산층, 예술가, 외지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다.

6) 이영수, 노은주, “20세기 초 영화에 나타난 근대인의 공간적 실천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89(2011), 126.

20세기 초, 발터 벤야민도 ‘목적지 없는 걷기’를 시도하는 산책자들이 도시 풍경의 이질성과 새로움을 줄 수 있음을 관찰하면서 1930년대 파리의 도심과 아케이드 공간을 배회하는 이들을 주목했다. 이들은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도시 공간의 변화를 위해 시적, 신체적 경험을 도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존재들이다. 20세기 근현대 도시가 갖는 한계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발터 벤야민은 익명의 대중들이 도시 공간의 주체이자 창조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주목한다. 벤야민의 분류에 따르면 도시의 주체들은 도시 풍경의 일부로서 익명성 뒤에 숨어버리는 ‘대중과 스스로 성찰하는 개별자인 ‘산책자’로 구분된다. 물론 ‘산책자들이 대중 속에 편입되기도 하다가도 언제든지 그들과 나뉘어 거리의 관찰자가 되면서도 성찰자가 되는 이중성을 띤다. 벤야민은 도시의 산책자가 경험하고자 하는 미학적 체험이 허용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여겼다.」<sup>7)</sup> ‘산책자’는 몰입과 이탈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이자,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기자로서의 성찰을 보여준다. 이들은 거리를 전유하기, 걷기, 바라보기, 보여지기를 실천하면서 군중 속에서 눈에 떨 수 있는 보이면서도 볼 수 있는 존재들이며,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음미한다.<sup>8)</sup>

벤야민은 근대 도시 대중들의 사고에 대한 이론적이고 비판적인 반대를 시도하기 위해서 대중 속에 다양한 계층의 존재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는 도시민들의 일종의 잠재성을 일깨우기 위한 시도로서 ‘산책자’를 서술하는데, 그들의 생활양식은 도시 설계가의 문법이나 이론의 사회학적

7) 성석환,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문화선교』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94. 벤야민은 그의 당대적 삶의 원초적 형태로서 가장 자명한 사회적 유형들을 선택하는 대신, 도시의 주변부로 내려가 역사적 형상의 만보객, 매춘부, 수집가를 선택했다. 만보객은 어떤 단일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산책자들은 시장의 관찰자이며, 감정이입의 달인들이고 특히 무위론자이다.

8) Valentine, Gill,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박경환 역,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280-282.

사고에 동의하지 않고 어떤 아우라와 숭고함이 자리하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존재들이다. 벤야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근대성이 가져온 폐해로 존재의 숭고함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가 생각한 숭고함은 시골의 능력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유발하는 자연성과 낭만이 결합된 개념이다. 하지만 도시는 근대성의 결정체로서 똑같은 모양의 결정들의 무한한 반복으로 인위적이고 반복적인 기계화의 산물이다. 도시는 산책자와 같이 자연스러움을 따라 걷는 성찰적 걸음으로 걷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비로소 새롭게 존재하게 되며 생명력을 얻게 되며 이들은 도시 안을 돌아다니며 상점, 공연장, 카페, 공원 등과 친밀해지면서 도시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다르게 상상하게 한다.<sup>9)</sup>

미셸 드 세르토 역시 도시의 걷기 행위가 가지는 창조성과 발화적 행위를 주목한다. 세르토는 1984년에 발간된 『일상생활의 실천』에서 소비문화에 잠식된 도시공간의 변화를 위해 걷기 담론을 제안한다. 근대 도시를 장악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일상의 평범한 실천으로 대화와 걷기를 강조한다. 말하기와 걷기는 한 개인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는 도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 행위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일상생활의 공간은 자본화된 권력과 질서가 작동되는 장이자 도시의 문화적 영향력에 지배된 영역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속에 담긴 권력의 속성을 포착하고 일상으로부터 창조적 실천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고민한다.<sup>10)</sup> 세르토의 관심은 일상의 창조적 실천에 있다. 도시라는 거대한 근대적 권력이 장악한 공간에서 한 개인의 행동양식으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전유(appropriation)한다.

9) 이신해, 『걷는 도시 서울』(서울: 서울연구원, 2016), 5.

10) 안미현, “걷기의 수사학: 세르토의 관점에서 본 로베르토 발저의 제유적 글쓰기,” 『독일 언어문학』 82(2018), 256.

도시의 관찰자인 산책자(flaneur)는 ‘사색적 걸음걸이’로 도시를 새롭게 이해하고 공간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다. 산책자들은 도시의 비밀을 찾아내고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 도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닌다. 공간이 간직한 이야기의 전달자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들이 남기는 도시의 발자국은 도시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이며, 도시 공간의 특수한 환경에 다양한 사람들의 저마다의 도보를 통한 도시의 경험이 도시를 계속해서 새롭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sup>11)</sup> 산책자와 같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걷기는 세속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갈 뿐 아니라 하나의 존재적 의미작용으로서 공간 실천의 좋은 사례가 된다. 거대한 파놉티콘과 같은 도시의 감시망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걷기를 통해 도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실천한다.

## 2. 텍스트화된 도시 읽기/쓰기

세르토는 세계무역센터 전망대에 올라 파노라마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면서 도시 공간에 대한 특별한 시각적 경험을 갖게 된다. 파노라마로 경험되는 도시는 권력의 정점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파놉티콘의 관점으로 구성된 유토피아였다. 전지적 시점에서 관찰되는 근현대의 도시계획적 사고를 직접 목도하면서 도시를 하나의 추상적 공간으로 사유하며 합리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sup>12)</sup> 그는 관점의 높낮이에 따라 도시 공간의 구상과 실천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의 다른 두 접근이 가능함을 언급한다. 즉 ‘전략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이미 구성된 장소, 즉 정적이고 주어진 구조에 관련된 해석이라면, ‘전술’은 낮은

11) Amin, Ash and Thrift, Nigel, *Cities* (Cambridge: Polity, 2002), 10-23.

12) 백영주,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실천과 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46(2017), 85.

시선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실천이다.<sup>13)</sup> 전략적 장소로서 도시 공간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파놉티콘처럼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지역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통제 가능한 범위를 지칭한다. 반대로 저항의 행위로서의 ‘전술’은 장소를 획득하지 못한 이들의 행위로서 높은 시선의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시선 즉, 배회하거나 쇼핑하는 행인들의 모습처럼 ‘걷기’를 통하여 도시 공간을 재점유하는 행위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절대자의 사유는 도시를 하나의 개념적 공간으로 이해시키지만 기획된 공간을 전혀 다르게 사유하고 실천으로서 ‘걷기’는 도시 공간을 전복하는 전술로서 하나의 실천적 행위이자 공간의 재탄생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도시 공간의 창조적 해석과 실천을 위해서 미셸 드 세르토는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본다. 그는 ‘언어적 전환’을 수행한 후기 구조주의 또는 탈식민주의의 흐름을 따라 ‘공간적 전회’를 시도한다. 세르토는 공간과 장소를 구분했고 공간이 일상의 종합적 실천 영역이라면 장소는 고유한 안정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제도의 영역이다.<sup>14)</sup> 공간을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보던 그는 텍스트와 같이 공간을 해석하고 글쓰기가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했다. 글쓰기는 사회와 타자의 신체를 텍스트화하는 행위이고 해석하는 전략과 같다. 이 전략은 공동체가 지적 및 사회적 통제 아래 미리 확정된 진리의 장에서 과학적 규칙을 끌어내어 발견하도록 설계된다. 세르토는 글 읽기에서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전환과 전도, 변환과 전복을 감행하고 비틀어 가면서 의미 변환적 수사를 사용하고 또 우회하는 접근과 술수의 방식을 수용한다.<sup>15)</sup>

13) Massey, Doreen, *For space*, 박경환, 이영민, 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 (서울: 심산, 2016), 93.

14)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이론,” 류지석 엮음,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환』 (서울: 소명출판, 2013), 54-55.

15)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8-34.

세르토는 도시를 기획된 도시와 읽히는 도시, 발화자와 판독자 간의 교차로 인식했다. 르네상스 원근법의 발견 이후 인간은 투시적 시각과 전망적 시각이라는 이중적 투사를 통해 도시의 표면을 조직했고 이는 곧 도시적 사실이 아닌 도시의 개념으로 전이하는 결과를 낳았다. 세르토의 ‘개념 도시’의 접근은 높은 빌딩에서 바라보았던 도시의 이미지와 해석을 하나의 개념화된 추상적 공간으로 인식한다. 근현대 도시 공간은 생산성과 효율성에 주력하고 도시의 전통, 역사, 문화 등을 공식적 시스템으로 만들어 결국 보편화되고 객체화된 익명의 주체로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개념 도시로서 도시 공간은 일상의 실천적 행위인 걷기를 통해서 다시 파악될 필요가 있다.<sup>16)</sup> 도시의 재인식과 실천에 있어서 도시 공간을 어떻게 조감하는지 혹은 투시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 공간 인식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 세르토는 높은 건물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방식과 도시 안에서 거리를 걷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도시를 한눈에 보려는 시각적 허구에 대한 욕망은 기술 발전과 함께 ‘모든 것을 보는 권력’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도시를 내려다보는 자는 뒤엎킨 일상생활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실천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sup>17)</sup>

세르토는 파노라마로 도시를 바라보면서 현상적 공간의 경험에 집중하면서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처럼 ‘공간적 전환’을 시도한다. 그에게 도시는 하나의 텍스트이다. 랑그와 파롤, 즉 기표와 기의의 관계처럼 사람은 하나의 기표로서 저마다의 의미를 지닌다. 기표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들은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인간의 도보 행위는 도시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방법론이다. 텍스트는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인들과 사회적 계층구조를

16) 김성도, 『도시 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715.

17) 이영수, 노은주, “20세기 초 영화에 나타난 근대인의 공간적 실천 분석 연구,” 129.

지지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산물이지만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 즉 글의 비판적 읽기는 권력구조에 맞서는 행위로서 걷기는 저자(도시의 기획자)의 의도와 다르게 독자(시민)들의 창의적인 해석과 실천으로 기존 질서에 비틀기를 시도하며 틈새를 내는 전술이라 보았다.

걷기는 보행자가 도시 공간을 전유하는 과정으로, 마치 발화자가 언어 체계를 전유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다. 보행을 통한 발화 행위는 장소의 랑그적 가능성을 해체하고, 도시 공간을 자신만의 친밀한 공간으로 변환시킨다. 전술적 걷기는 기획된 공간을 가로지르며 지름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규칙을 벗어난 자신만의 경로를 구축한다.<sup>18)</sup> 걷기는 그에게 하나의 수사학적 표현과 같다. 도시라는 텍스트를 새롭게 사유하면서 자신만의 글쓰기를 시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도시적 서사, 글쓰기 행위는 보행자의 발화 행위가 된다. 도시가 하나의 텍스트일 때, 독자들의 자유로운 글 읽기처럼 도시의 창조적 해석자인 산책자들이 도시 계획자들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그들의 발화 행위로서 걸음걸이 만들면서 수많은 의미와 기호들을 발생시켜 전복적 행위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공간적 걷기를 실현하는 순간에 도시의 거리를 자기화하면서 도시 계획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고 새로 해석된 공간을 구성하면서 거리와 광장을 전유해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한다.<sup>19)</sup> 이러한 산책자들의 발화의 전술적 걷기는 도시 텍스트를 스스로 기록하며 도시 서사를 스스로 써 내려간다. 도시의 서사는 기획자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공간 안을 거니는 산책자가 주체적으로 걷기의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 이러한 도시의 서사는 계획적이고 분석적인 도시 공간을 대체하면서 어느 부분은 사라지게

18) 안미현, “걷기의 수사학: 세르토의 관점에서 본 로베르트 발저의 제유적 글쓰기,” 257.

19)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52. 세르토는 공간과 장소를 구분한다. 공간이 일상의 종합적 실천 영역이라면 장소는 고유한 안정성을 가지고 활동에 권위를 부여하는 제도적 영역으로서 모순된 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세르토는 공간을 실천된 장소라고 말한다.

하고, 다른 부분은 과장함으로서 과농탁한 질서와 감시체계에서 벗어난다.<sup>20)</sup> 물론 걷기 행위가 가지는 경험의 스케일이 미시적이고 개인적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걷기를 통하여 공간의 물리적 특성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의 본래적 목적을 비틀어 은유적 또는 우화적으로 접근할 때 근현대 도시가 가지는 비인격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을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재해석된 도시를 살아가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창조적 실천으로서 전술적 걷기

세르토는 도시의 일상에 관심을 두면서, 언어적 전환에서 출발하여 공간적 전환에 도달한다. 도시의 일상인들은 보행자요 방랑자며, 이는 도시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가장 초보적인 형식이다. 보행자들은 도시라는 텍스트를 정확히 읽어 낼 능력은 없이 복잡하고 순응한다.<sup>21)</sup> 근현대의 도시 기획은 도시 공간의 빠른 연결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듯한 구획정리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 체계에 의해 시민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고 있다. 여유를 갖고 도시 공간을 걸거나 산책하기보다 거리에서 빨리 사라져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단숨에 이동하도록 종용한다. 시민들의 마주침에 사라진 거리는 감시카메라(CCTV)에 의해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감시의 공간, 빨리 지나가야 하는 비대면적인 공간으로 전락시켰다. 도시의 거리는 걷는 사람들의 공간 아닌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되었고, 도보가 아닌 대중교통 시설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sup>22)</sup>

전술적 걷기가 도시 공간의 새로운 실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걷기

20) 안미현, “걷기의 수사학: 세르토의 관점에서 본 로베르트 발저의 제유적 글쓰기,” 261.

21)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50.

22) Jacobs, Jane, *City planning*, 120-121.

가 지니는 공간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도는 걷기의 발화과정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한다. 첫째는 도보자가 지형의 시스템을 자기화하는 현재성을 창조하며, 둘째는 걷기의 다양한 진행 경로를 통해서 도시 공간에 흠여지는 이산성을 보이고, 마지막은 다양한 걷기의 방식으로 하나의 놀이와 즉흥의 예술과 같은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점이다.<sup>23)</sup> 즉 전술적 걷기는 현재성, 이산성, 창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시 공간의 변혁적 실천으로서 가장 탁월한 행위가 된다. 걷기는 공간을 타자화하지 않고 자기 일체화하는 실천 행위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형식의 걷기와 방향들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재탄생한다. 기획된 공간으로 무의한 장소가 아니라 공간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행위로 인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장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걷기의 장인 보도는 도시 내의 여러 경계선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며, 지나치는 행인들로 인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 제인 제이콥스 역시 도시의 생명력을 위해 보도가 중요한 곳임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보도는 무의식적인 가정이 존재하는 곳으로 시민들의 내면을 연결해주는 신뢰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만남의 공간인 보도가 시민들의 신뢰 형성과 안전에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눈의 마주침과 관찰을 통한 마주침이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셰르토 역시 걷는 이들의 마주침과 시선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주목한다. 미셸 푸코의 관점과 달리 파놉티콘 전략은 일반적으로 관철될 수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걷기를 통해 근대의 전방위적인 감시체계에 맞설 수 있다.<sup>25)</sup> 점유된 공간을 전유하는 걷기 행위는 개개인의 보행자가 국가 권력과 지배체제에 맞서 역감시하는 과정이며 도시를 다시 걷는 이

23) 김성도, 『도시 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824.

24) Jacobs, Jane, *City planning*, 90.

25) 장세룡, 『미셸 드 셰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55.

들의 시선으로 글쓰기 해나가는 작업이다.

걷기는 그 자체로 표현 매체이자 수행 방법으로서 일상 현실에의 참여를 도모하고 실천의 장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동사로서 걷기는 똑바로, 함께 느리게 등의 상태 형용사 및 골목길, 거리 등의 공간 유형과 결합하여 삶에 대한 태도와 윤리 의식을 드러내거나 사회적 연대감을 은유하기도 한다.<sup>26)</sup> 따라서 걷기의 행위는 공간의 창조적 행위이다. 걷기는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며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진실된 의미를 부여하며 도시를 실제적으로 만들어간다. 산책자의 걷기는 지도에 나와 있는 장소를 탐방하는 것이 아니며, 비논리적 혹은 놀이적으로 공간을 전유하는 행위이다.<sup>27)</sup> 산책자의 걷기는 익명적 도시에서 무력감을 이겨내는 자기 해방적 여정이자 스스로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세르토의 공간 실천론의 개념적 근간이 된다. 동시에 걷기는 소외와 상실감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심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장소에 새겨진 헤게모니를 깨뜨리는 전략적 행위이다.<sup>28)</sup>

장소는 고정된 의미와 담론의 공간이 아니며, 언제든지 이용하는 이들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다. 신체를 통한 공간 발화는 도시의 보도를 자기화하며, 그 결과 보행자들의 걸음걸이는 도시 계획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고 새로 서술하며, 고유명사로 된 광장을 전유해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고 스며들게 한다.<sup>29)</sup> 세르토의 전술적 걷기가 가지는 변혁적 해석과 실천을 기독교의 순례 전통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일상의 반복적 행위로서 걷기가 가지는 발화 의미를 도시 공간의 성찰과 사유적 행위로 전환시킬 때 공간의 변화와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속의 가치에 물든

26) 백영주,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 84.

27) Ward, Graham, *The Certeau Reader*, (Malden: Blackwell Publishers, 2000), 105.

28) 백영주,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 92.

29) 장세룡,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52.

욕망의 도시를 전복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실천으로 순례적 걷기는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실천이 된다. 특히 세르토의 논의를 잇고 있는 스탠리 하우스워스의 순례에 관한 논의를 살펴해보겠다.

### III. 전술적 걸기로서 순례적 걸기

#### 1. 순례자의 성찰적 걸기

공간의 창조적 실천으로서 미셸 드 세르토가 제안하는 '전술적 걸기'는 기독교 전통의 '순례적 걸기'와 유사성을 지닌다. 걸기가 지나는 도보자의 성찰적 행위는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이자 새로운 공간과 사회를 향한 열망이 담긴 적극적인 실천 행위이다. 세르토는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leaving without departing) 독특한 삶을 통해 주체성을 잃어버린 형이상학적인 근대적 삶의 논리를 전복하려 한다. 그의 걸기에 관한 통찰은 근현대 도시를 새롭게 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낮은 시선으로 사회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순례와도 맥을 같이한다. 순례는 특정한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장소와 시간 안에서 마주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를 초월적 관점으로 재해석한다.<sup>30)</sup> 순례자들의 걸기는 지배질서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보적인 걸음걸이를 시도하면서 걸기 행위 자체로 공간의 변혁을 시도한다.

'순례'란 본래 교회에 관련되거나 그에 준한 사명, 혹은 교회의 허가 하에 수행되는 여행이나 사명을 뜻한다. 로마제국 말기부터 시작되어 성 마틴 성당(St. Martin)이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Santiago de Compostella)과

30) Cavanaugh, William, *Theopolitical Imagination*, (London: T&T Clark, 2002), 100.

같은 성인의 유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순례는 중세시대에 사회 전 계층에서 시행되었고, 정치인들과 귀족들 역시 자신들의 통치권 강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 신을 따르는 신앙심을 보이면서 동참하기도 했다. 길을 걷는 것은 신성한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정치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sup>31)</sup>

걷기의 사유를 순례로 받아들인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이 땅의 교회를 ‘식민지’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 된 거류민’으로 규정한다.<sup>32)</sup>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의 삶은 곧 나그네의 삶과 연결된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세속을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며, 세속을 극복하기 위해 세속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세르토가 도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상생활의 실천으로서 ‘걷기’에 주목했다면, 하우어워스의 ‘걷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 응답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순례자적 삶이다.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적 걷기 행위는 기독교 전통의 내러티브에 입각한 제자도의 실천이며 동시에 세속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이다.

세르토가 제안한 ‘전술적 걷기’도 그가 예수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기독교 신비주의와 이그나티우스 영성에 깊은 영향을 받았기에 그의 걷기는 하나의 종교적 사유이자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후기 저작인 “믿음의 약함”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 즉 제도와 권위의 중심지에 반대하는 유동적인 실천의 삶으로 묘사한다.<sup>33)</sup> 세르토

31) 설혜심, “중세 유럽에서의 순례의 대중성 분석,” 『영국 연구』 1(1997), 101-102.

32) Hauerwas, Stanley and Willimon, William H., *Resident aliens*,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 있는 사람, 2011), 13.

에게 그리스도인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재의 부조리와 병폐를 극복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며,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도시 권력과 세속의 체제에 저항하는 이들이다. 세르트의 ‘전술’은 단순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며, 자신이 믿는 도덕적, 정치적 규범이 은연중에 종교적이고 초월의 것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sup>34)</sup> 걷기는 정치의 행위이며 신앙의 행위이다. 자신의 신념이 어떠한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서 다름의 전략적 삶을 보이는 것이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교회의 정치학』에서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실천으로서 ‘전략’과 ‘전술’의 구분을 수용한다. 특히 ‘전략적 합리화’가 ‘자기 장소’, 곧 그 자체의 권력과 의지의 장소를 구성함으로 주변 환경과 구별하려는 것을 비판한다.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전능자의 관점은 인간의 권력과 욕망이 투영된 시선이다. 반대로 ‘전술’은 권력자의 보이지 않는 힘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장소를 한정하려는 노력으로 다름의 행위를 취하는 공간 실천으로서 유의미한 작업이라 평가했다.<sup>35)</sup> ‘전략’이 전방위 감시를 실천하면서 장소들에 대한 장악력을 갖게 하고 외부 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면, 반대로 ‘전술’은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계산된 행위이다. 전술이 펼쳐지는 공간은 타자의 공간이기에, 권력 있는 이들의 법으로 조직된 영토에서 시행된 불확정적인 행위가 된다. ‘전략’은 힘 있는 자의 위치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전에 돌입한다면, ‘전술’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단발적으로 실행되기에 늘 유동적이고 소규모

33) Sheldrake, Philip, *Spiritual city: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urban*, 김경은 역, 『도시의 영성』, (서울: IVP, 2018), 131-135.

34) 위의 책, 139.

35) Hauerwas, Stanley, *After Christendom?*, 백지윤 역, 『교회의 정치학』 (서울: IVP, 2019), 27.

로 진행된다. 세트로의 언급처럼 전술은 바로 약자들의 기술이다.<sup>36)</sup> 전술은 소수 공동체와 사회적 지위가 낮은, 다시 말하면 지배력을 갖지 않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들어내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벌이는 행위이다. 전술은 지배질서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하지만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다. 전략이 단시일 내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전술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산발적인 행동이다.

하우어워스가 약자들의 기술로서 견기의 전술을 선택하는 것은 탈기독교 시대, 즉 포스트-크리스텐덤(post-christendom) 상황에서 교회의 위치를 고민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수로서 더이상 세속의 군림자가 아니며 오히려 변방의 소수자로 전략하고 있다. 제도화된 조직으로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이동하는 하나의 운동이어야 한다. 하우어워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 초래하게 될지 모를 여행에 나선 순례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증언하고 그가 우리 삶의 박동이고 우리 존재의 의미와 형상이라는 사실을 존재 그 자체로서 선포해야 한다.<sup>37)</sup> 절대 권력에 순응한 세속의 시민들에게는 권력과 자본의 논리를 초월할 수 있는 신실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권력의 체제에 순응하는 삶이 주는 만족과 성공의 스토리가 아닌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회를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이야기여야 한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순례자처럼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실천과 자기 성찰의 훈련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sup>38)</sup>

그렇다고 순례가 특정한 공간으로 지칭되는 성경의 땅을 향한 여정이

36) 위의 책, 28.

37) Hauerwas, Stanley, *Peacable Kingdom*,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68.

38)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287.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땅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물론 거룩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 땅을 향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합리주의나 환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향력을 지닌다. 성경의 도시들을 찾아가고 성경의 내러티브들을 상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과거의 사건과 시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순례는 과거를 통과하여 새로운 비전과 도시를 향한 미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순례가 과거의 땅을 밟는 행위를 넘어서서 현재적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행위로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거룩한 장소를 향한 순례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향한 여정이다. 바르트는 거룩한 장소를 특정한 역사적 현장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모든 장소에게 열려 있는 곳으로 이해했다. 거룩한 장소가 모든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소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sup>39)</sup>

즉, 기독교 전통에서 순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지닌다. 첫째는 ‘뿌리’(root)를 향한 여정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던 장소를 향한 신앙의 근원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되며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물려 받은 성지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증언하는 것이다. 둘째는 ‘상징적 여행’(symbolic journey)이다. 순례가 땅의 여정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며 이 여행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향을 떠나 약속된 장소를 향해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정착지인 하늘의 본향,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된다. 새로운 도시를 향한 여정은 현실의 도시를 초월하게 할 뿐 아니라 하늘의 도시처럼 변화시켜야

39) Gorringer, T. J., *The Common Good and the Global Emergen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84.

하는 사명을 지닌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목적’(eschatological destination)으로 예수 안에서 완성될 마지막 삶의 완성과 목적을 향하게 한다.<sup>40)</sup> 순례를 통해 특정 장소가 가지는 역사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열린 교섭을 통해 장소를 유동적, 관계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순례는 배타적인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성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변혁적 공간으로 도시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sup>41)</sup>

기독교 전통의 순례는 개인적인 실천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특징을 지닌다. 중세시대 순례는 공동체적 여정이었고 사회적 사건이었다. 세속의 여행이 세상의 가장자리를 향한 여정이라면, 순례는 중심을 향한 여정으로 특별한 공간을 찾아 자아와 진리 앞으로 스스로를 내려놓는다. 순례의 공동체인 교회는 낯선자들과 연대하며 환영하고 함께 걷기를 초청한다. 이러한 걸음은 미래를 향한 여정이고 종말론적인 존재의 깨달음과 공동체를 소망하게 한다.<sup>42)</sup> 도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 특히 낯선 이들과 연대하는 평화와 포용의 도시 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시의 순례는 도시를 거룩하고 성스럽게 하는 공동체적 실천이기도 하다. 특정한 지역의 거룩한 장소를 찾는 순례에서 모든 장소를 성소로 여기며 살아가는 순례자적 삶을 통해 도시의 영성과 관계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 2. 정치/신앙적 행위로서 순례

도시 공간의 성찰적 걷기는 단순히 땅을 밟은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40) Inge, John, *A Christian Theology of Place*, (Burlington: Ashgate, 2003), 92.

41) 이상봉, “모빌리티 패러다임: 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207-218.

42) Cavanaugh, William T., *Migrations of the Holy*, (Grand Rapids: W. B. Eerdmans, 2011), 80-84.

창조적인 신앙의 실천으로서 도시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동시에 사람들과 연결되는 정치적 행위이다. 도시를 순례자로서 걷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과 사역처럼 구체적인 도시의 현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시민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이다. 도시 공간과 도시 공동체의 문화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성적 삶으로 공간의 정서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행위와 연결된다.<sup>43)</sup>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시의 그리스도인은 모두 도시의 순례자이다. 걷기를 통하여 순례자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연결자가 된다. 동시에 순례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함께 걸어간다. 이러한 걷기는 초월과 내재의 만남으로 도시 공간을 세속적 욕망과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신앙적/정치적으로 성찰하고 해석하게 한다.

하우어워스에게 교회는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나그네 된 거류민으로 살고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는 식민지이다.<sup>44)</sup> 그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교회를 식민지로 묘사한다. 그것은 세속 정치와 지배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그네 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을 신뢰하기에 차별화된 백성으로 살아간다. 또한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은 정치적인 삶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난 큰 변화에 동조해 사는 새 백성을 세우는 삶이 된다.<sup>45)</sup>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대안 공동체로 존재한다. 세상에서 분리된 안전한 은둔처나 정착촌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공동체는 ‘순례의 여정’(in via)을

43) Dixon, Paul, *Nomadic Faith*, (Urban Loft Publishers, 2014), 86.

44) Hauerwas, Stanley and Willimon, William, *Resident aliens*, 71.

45) 위의 책, 32.

견고 있는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 순례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 말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길을 따라 이루어진다.<sup>46)</sup>

도시의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의 공동체이자 대안적 사회를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화와 물질적 소비주의는 현재의 삶을 억압하고 현재를 거짓된 영원성에 가두어 놓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문화적 조건을 넘어서는 삶을 요청받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에 일치하는 것이며 자신을 종말론적인 존재로 동일화하는 태도와 행동을 배양하게 한다.<sup>47)</sup>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의 최선은 기도이며, 그리고 기도는 들음의 훈련으로 발전한다. 다시 말해 순례자로서 따름은 묵상에 기원을 두며, 묵상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종말론적 인간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개인적인 소명, 헌신, 응답에 그치지 않으며 도시의 빈민, 병자, 약자를 먹이고 입히는 공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 순례의 내적 행위로서 기도와 묵상을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은 오해이며, 기도와 묵상 그리고 나눔은 경건주의 행동이나 자기성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원자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자신을 개방하고 세상을 포용함으로 자아의 안팎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나눔 안에서 우리 자아뿐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과 진실되게 마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거대한 연결망 안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모든 관심과 연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을 통과하여 해석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적 불평등, 물질적 소비주의, 세속적 욕망 등을 성찰한다. 순례자들이 지니는 초월적 관점과 관계적 실천은 신앙

46) Guder, Darrell L., *Called to Witness*, 허성식 역, 『증인으로의 부르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68.

47) Ward, Graham, *The Politics of Discipleship*, (London: SCM Press, 2009), 277-279.

의 행위이자 곧 정치적 행위가 된다. 즉 순례의 행위로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나눔은 도시를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가장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sup>48)</sup> 순례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도시의 현실적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과제 앞에 예언자적인 통찰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할 책무가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억눌린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선포해야 한다. 창조적 과제로서 상상력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새로운 가나안을 상상하며 출애굽을 이끌었던 것처럼 상상력은 교회 공동체가 도시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상향을 제안하는 방향이 된다.<sup>49)</sup>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걷기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정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정치의 헌법이 복음서이다. 복음서는 인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의 메뉴얼이다.<sup>50)</sup>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그분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가 행했던 것을 다시 재현함으로써 그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휴머니즘이요 정치적 제자도의 결과로서 모방적 실천, 순종의 실천, 신앙의 실천이다. 이러한 순례자의 종말론적 인간 이해는 예수를 따름에서부터 나오며 특정한 상황의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희망을 실천한다. 로완 윌리엄스(Rowan Douglas Williams)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무리 안에 있겠다는 자발적 태도를 제자도로 정의’하면서, 온전한 평정과 균형

48) 위의 책, 280.

49) Leong, David P., *Street Signs*, 144-147.

50)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107.

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 열린 자세를 지니면서 하나님의 행위를 담아내는 변혁적 삶을 통해 자신과 주위 환경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1)</sup>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식민지’라고 주장할 때 그 식민지는 신학적인 의미든 지리학적인 의미든 한 장소, 곧 요새화된 진지를 뜻하지 않는다. 도시 내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구축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식민지란 예수의 첫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예수를 따라가고자 애쓰면서 이동하는 백성 그 자체이다. 세속의 한복판에 위치하지만 동떨어져 있는 섬처럼 세속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식민지의 백성들은 모험의 여정을 떠난다. 그 길 위에서 변화무쌍한 미지의 일들을 만나고, 내부적으로도 깊은 논쟁에 빠지며, 낯선 장소를 방문하고, 수없이 소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현재 상태를 점검한다.<sup>52)</sup>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정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sup>53)</sup> 제자로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순례의 여정을 떠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세속적 가치에 저항하는 대항문화 사건에 참여하여 교회라는 새 폴리스에 가입하라는 초청이다.<sup>54)</sup> 이러한 순례의 신앙적, 정치적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도시, 하나님의 도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51) Williams, Rowan, *Being Disciples*, 김기철 역, 『제자가 된다는 것』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42-44.

52) Hauerwas, Stanley and Willimon, William H., *Resident aliens*, 75.

53)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107.

54) Hauerwas, Stanley and Willimon, William H., *Resident aliens*, 41.

### 3. 순례적 걷기에 대한 비판적 적용

세르토는 도시 공간의 변화에 있어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즉 ‘공간 서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시는 단순한 건물과 공간의 모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적 요소로 이해했다. 도시의 계획과 재생의 동력이 시장의 자본 논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들과 그 실천에 있다는 점에서 세르토는 공간의 필수요소를 영적인 토대에 무게를 둔다고 볼 수 있다.<sup>55)</sup> 하우어워스도 순례라는 신앙의 행위가 갖는 변혁적 실천성에 관심을 두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자 탈기독교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세르토와 하우어워스의 공통점은 공간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제도과 질서의 변화보다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근현대 도시 공간의 권력화된 구조를 전복하고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삶을 넘어서는 초월적 여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 설계나 정책적인 접근보다 사람 중심의 방식을 취했다. 좋은 도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걸음걸이, 그들의 우연한 만남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변화된다. 그러한 걷기 행위는 도시의 진정한 생명력이자, 도시의 풍경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는 원천이다.<sup>56)</sup>

순례자들의 걷기는 하나의 의미의 발화 행위이다. 발화 의미는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를 구성하는 내러티브 구조를 띤다.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내러티브는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되게 한다. 순례자들의 걷기 행위 역시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그 이야기의 담지자로서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따르고 실천하는 순례자이다.

55) Shelldrake, Philip, *Spiritual city: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urban*, 144.

56) 위의 책, 143.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계명이나 규칙에 따른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예수 이야기에 걸맞게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sup>57)</sup> 순례적 걸음걸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걷기 속도로 늦춤으로써 일상의 모든 공간을 성찰할 수 있는 사색의 장소로 만든다. 그러한 길들은 보행자들을 의미의 장소로 인도하는 성찰의 공간이자 만남의 장이 된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타자들과의 관계는 도시를 생명력 있게 하고 타자를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여 안정과 연대를 형성시킨다.<sup>58)</sup>

물론 하우어워스의 순례는 사회 변혁적이라기보다 교회 중심적인 실천에 우선성을 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적 순례는 도시 공간의 변혁과 사회적 참여를 시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는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우어워스의 제자도가 교회됨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영성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복음의 사회적 증인됨은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영성으로서 제자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sup>59)</sup> 하우어워스의 제자도를 ‘사회적 제자도’의 구현과 맥을 같이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 광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공적 제자도와 닮아있다. 하우어워스의 제자도는 철저히 복음의 사회적 증인됨을 지향한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이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행위의 문제에서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문제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하우어워스의 입장을 교회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공론장안에서 공적 이슈

57) Hauerwas, Stanley, 『평화의 나라』, 93.

58) 김승환,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173.

59) 문시영,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 모색: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0(2020), 55.

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공공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신학은 교회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공신학의 입장에서는 세속 사회와 구별되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공통의 분모를 찾는 것이 우선적이다.<sup>60)</sup> 그러나 세르토와 하우어워스가 제안하는 걷기 행위가 지니는 발화적 의미와 전략적 행위는 공공신학과 기독교 공동체주의 모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공적 실천으로서 성찰적 걷기는 시민 사회의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종교적 행위로서 공공신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염원을 담은 실천이 된다. 공공성과 공동체성으로 구분하려는 신학의 근대적 이원론을 거부하고 도시 공간의 실천으로서 성찰적 걷기가 가지는 변혁적 행위에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 IV. 나가는 말

세르토와 하우어워스가 제안하는 전술적 걷기로서 성찰적 걷기가 자칫 오해되면 보수 신앙인들의 땅 밟기와 같은 미신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도시의 위상을 타파하고 지역의 어두운 영적 힘들에 저항하는 신앙적 행위로서 땅 밟기는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 종교를 무속집단 내지는 반이성적 신념을 지닌 종교로 낙인될 우려가 있다. 성찰적 걷기는 근현대 도시의 합리성과 세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신앙적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걷기인 동시에 신앙의 실천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성육신적 걷기이며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이기도 하다.<sup>61)</sup> 물론 한 개인의 걷기라는 미시적 행위가 어떻게 사회변화와 공간의 재탄생을 가능하게 할지는 많은 설명을 요구

60) 김승환, 『공공성과 공동체성』(서울: CLC, 2021), 120-121.

61) 김승환,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180.

할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 변화와 문화적인 차별성을 가져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간적 행위이자, 그러한 개인들이 연대하여 모이는 행진(March)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룩한 욕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가 보여준 촛불집회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본네베르거 목사가 주도한 월요행진이 그 예이다. 이처럼 걷기라는 단순한 성찰적 행위가 선사하는 새로운 상상력과 변혁적 행위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열망이 하나로 뭉쳐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성도. 『도시 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서울: 안그라픽스, 2014.
- 김승환.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 김재현. “중세 기독교 순례와 도시의 발전.” 『서양중세사연구』 21(2008), 102-124.
- 류지석 외.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환』. 서울: 소명출판, 2013.
- 문시영.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 모색: 하우어위스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0(2020), 45-71.
- 백영주.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실천과 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46(2017), 81-108.
- 설혜심. “중세 유럽에서의 순례의 대중성 분석.” 『영국 연구』 1(1997), 101-124.
- 성석환.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문화선교』.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승효상.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서울: 돌베개, 2016.
- 안미현. “걷기의 수사학: 세르토의 관점에서 본 로베르트 발저의 제유적 글쓰기.” 『독일언어문학』 82(2018), 249-276.
- 이상봉. “모빌리티 패러다임: 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지』 25(2017), 113-138.
- 이신해. 『걷는 도시 서울』. 서울: 서울연구원, 2016.
- 이영수, 노은주. “20세기 초 영화에 나타난 근대인의 공간적 실천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89(2011), 124-134.
-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정석. 『도시의 발견』. 서울: 메디치, 2016.
- Amin, Ash, Thrift, Nigel. *Cities*. Cambridge: Polity, 2002.
- Cavanaugh, William T. *Theopolitical Imagination*. London: T&T Clark, 2002.
- \_\_\_\_\_. *Migrations of the Holy*. Grand Rapids: W.B. Eerdmans, 2011.
- Dixon, Paul. *Nomadic Faith*. Skyforest: Urban Loft Publishers, 2014.
- Gorringer, Timothy J. *The Common Good and the Global Emergen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Guder, Darrell L. *Called to Witness*, 허성식 역.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Hauerwas, Stanley. *After Christendom?*, 백지운 역. 『교회의 정치학』. 서울: IVP, 2019.
- \_\_\_\_\_.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 \_\_\_\_\_. *Peacable Kingdom*.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_\_\_\_\_. Willimon, William H. *Resident aliens*,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 있는 사람, 2011.
- Inge, John. *A Christian Theology of Place*. Burlington: Ashgate, 2003.
- Jacobs, Jane. *City planning*,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서울: 그린비, 2010.
- Kreminski, Karina. *Urban Spirituality*. Skyforest: Urban Loft Publishers, 2018.
- Massey, Doreen. *For space*, 박경환, 이영민, 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 서울: 심산, 2016.
- Sheldrake, Philip. *Spiritual city: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urban*, 김경은 역. 『도시의 영성』. 서울: IVP, 2018.
- Valentine, Gill.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박경환 역.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 Ward, Graham, edited. *The Certeau Reader*. Malden: Blackwell Publishers, 2000.
- Williams, Rowan. *Being Disciples*, 김기철 역. 『제자가 된다는 것』.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논문투고일: 2022년 02월 23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01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에서는 미셸 드 세르토가 주장하는 도시 공간의 ‘전술적 걷기’가 지니는 발화적 의미를 살펴보고 기독교 전통의 순례 행위와 연결하여 공간의 변혁적 실천으로 ‘성찰적 걷기’를 제안할 것이다. 합리성과 효율성이 지배하는 근현대 도시가 잃어버린 초월성과 영성, 인격적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행위로써 ‘성찰적 걷기’는 신앙의 실천이자 사회 변혁적 행위이다. 세르토는 인간의 도보행위를 하나의 의미적 행위, 자기 성찰적 행위로 이해했으며, 도시의 지배체계와 사회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실천으로 설명한다. 도시의 기획된 공간에 순응하여 걷는 대중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걸음걸이를 시도하는 ‘산책자’(만보객)는 도시 공간의 창조적 해석자이면서 실천가이다. 기획된 각본에 따르는 동선이 아닌 자신만의 의미를 발화하면서 도시 공간을 가로지르며 성찰적 걷기를 시도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 다른 삶을 지향하고 초월성과 관계성을 향한 ‘순례적 걷기’로 연결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세르토의 ‘전술적 걷기’ 개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도적 삶으로 확장시킨다. 하우어워스에게 ‘순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적 뒤따름이요, 세속문화와 질서를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를 통하여 공간과 공동체의 변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안내한다.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가 지니는 초월성과 관계성을 토대로 세속도시의 지배질서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삶을 살아가는 도시신학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공간 실천, 미셸 드 세르토, 스탠리 하우어워스, 순례, 전술적 걷기

---